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어웃 사랑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 주간 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원 편집:양재웅

2006년 제3차 청지기 훈련을 마치고

## “오! 주여 저희 얼굴을 수치로 가득하게 하소서!”

“구원에 이르는 수치”(사 83:16)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교만과 자존심은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의 눈물이 예배당을 가득 채운 뿐이었습니다.

수치가 반드시 필요한 죄인들에게 선포된 이 은총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 열린 믿음의 길을 향해 대담히 나아갈 것입니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수치뿐! 그러나 수치 속의 비밀을 깨달으니

십자가가 보이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네!

오 주여!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보혈의 은으로 믿음의 길 걷게 하소서.”

제3차 청지기 훈련 말씀 요약

## 구원에 이르는 수치(시편 83:16)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와 의, 순수함을 방해하는 악한 자들을 볼 때에 우리의 심령은 그들을 미워 할 수밖에 없다(계 2:2,6). “주여 어찌 이토록 지체하십니까? 주님의 정의로 판단하여 마땅한 대가로 처리하소서”(계 6:10)라고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싶은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나 의의 분노 속에서도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 호소에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다.

## 1. 수치를 느낄 이유가 있는 사람들

- 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한다. 자신의 공로를 앞세운 사람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자리에 놓인 자가 되었다(골 1:25). 따라서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놓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신 6:5).
- ② 하나님을 대적하며 경외할 마음이 없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빛과 진리를 반대하고 자신의 양심의 소리와 반대되는 것을 따르며 선한 반쪽과 악한 반쪽이 투쟁하고 있다(롬 7:21).
- ③ 옳은 것을 알면서도 뒤로 미루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한다. 한번 미룰 때마다 한 번 더 죄를 범하게 되며 지체할수록 선종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 ④ 자신이 스스로 맹세한 서약을 깨뜨린 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서약을 다 기록하신다. 수없이 만들어졌던 그 약속들! 생각 없이 파괘되었던 모든 약속들이 심판받는 날 다 나타날 것이다(계 20:12,15).
- 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함에 대하여 누구나 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구주로 믿지 못하였다. 오히려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시고 자신을 우리는 멀리하고, 밀어냈다.
- ⑥ 위의 모든 것들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생각조차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에 관하여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에 대하여 믿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가 참으로 요구되는 자들이건만 이 진리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다(골 3:9).

## 2.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수치

수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수치는 자신의 의가 부수어지는 것을 보게 한다(창 3:12).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었을지라도, 교만한 자였을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명성을 잃게 되었을 때에도, 진심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자는 복된 사람이다(호 6:1). 그런데 정신적인 오류로 말미암아 오는 수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충분히

하게 들었으니 이제는 어디선가 더 밝은 빛이 비추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수렁에 빠진다. 결국 모든 것이 혼잡하여지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게 된다(갈 1:7,8). 그러나 결국 수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다. 이제 진리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며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고전 2:2). 수많은 시간과 기회를 허송 세월에 산 신자들은 더욱 깊은 수치를 느끼야 한다. 이 수치를 느껴야만 십자가 앞으로 인도될 수가 있으며,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치를 느껴야 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허락하실 것이고, 다시 한 번 그 얼굴을 주께로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게 하실 것이다.

## 3. 주께서 받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회개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눅 19:10). 잃어버린 자들의 한 가지 특성은 깊은 수치감이다. 자신들의 수치감으로 인하여 숨으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당신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마 11:28). 하나님께서는 빈곤에 처한 자들처럼 자기 자신의 재량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신다.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비운다면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완전하게 채우실 것이다(골 1:19, 2:3).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세상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죽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어 우리 모두 주 예수께 나아와 구원을 간구하는 자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 11월 교회 일정

- 5일(주) 제7차 성찬식(1부~5부 예배 시)
- 8일(수) 헌신예배(수요 2부 예배 시), 정기당회(수요 2부 예배 후)
- 15일(수) 총회 교회주변 전도(수요 1부 예배 후)
- 19일(주) 추수 감사 주일(각종 연일예배 2·3부 예배 시)

## \*임직자 명단

39대 정로 · 19대 안수집사  
47대 권사 명단이  
본지 4면에 있습니다.

##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합니다!

# REMEMBRANCE

*<sup>(24)</sup>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sup>(25)</sup>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sup>(26)</sup>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inthians 11:24~26)*

The Lord's Table is place of remembrance. As Christians partake of the bread and cup, they think about Jesus Christ. Many believers rightly remember His death and resurrection, and even His second coming, but do not remember His presence here and now. They remember the past and future, but forget the present. At this Holy Table, we personally receive great encouragement and wonderful blessings from Jesus. Just because we cannot see Him, does not mean that He is not with us. We do not come to the Lord's Table to remember Him because He is not here. Quite the contrary, we come to the Lord's Table because He is here and asks us to come!

Jesus is the Master of this Table. He presides at the head of this Table. We come remembering His death on a cross and that through God's power He resurrected, so that He could be with us now and forever. God's grace brings us here. When we deny ourselves, the power of Christ's blood supports us. When we take our cross and follow the narrow way as new creatures in this worship service, His presence fills us with His Spirit. There is a tremendous spiritual nature to Jesus being with us at this Table. We get excited about His death and resurrection. We get excited about His being alive and with us now. We get excited about His coming again to bring us to heaven. This exciting information gives us real encouragement.

If we come to the Lord's Table without the cross, thinking that He is not here and that we should just remember what it was like when He was here and when He will be again, then there is no meaning. It is imperative that we remember Jesus Christ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He will always be with us and He will always give us encouragement. He is alive and His Holy Spirit will continue to comfort us until His second coming.

At the Lord's Table, we proclaim the Word of God with our mouths and with our bodies. We confess and appreciate God's love through words and through actions. This ritual is filled with symbolic meaning. The bread represents Christ's body, and the cup represents His blood. These key elements of His sacrifice are the basis of our salvation. When we physically take the bread and cup, truly remembering the mercy of Jesus Christ and how His love absolutely changed our lives, then we are really proclaiming the gospel.

Believers have to join with Jesus at this Table until He comes back. We have to remember what His death and resurrection means, so that we can obtain the results. We have to dedicate our life to Him because He forgives us our sins. Under any circumstance, we have to obey the Word of God until His second coming. In this church, we cannot respect other human beings or the name of this church. We cannot proclaim the history of this church. We have to respect Jesus. Salvation only comes from His cross. He is Lord. He is the Son of God. He made this church His own. Our confession to remember the cross, to remember His resurrection, and its affects on our past, present, and eternal future is essential at this Table. Through the cross, there is resurrection and through the blood of the Lamb, we become new creatures, children of God. Through all this, there is also a second coming of Jesus.

1 Corinthians 1:18 says,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If the word of the cross saves us, then we love Jesus. We praise His love and appreciate His grace. We sacrifice our hearts and bodies to Jesus Christ and proclaim His salvation. He overcomes sin and death, which is why He is Lord of Lords. Let us join His Table now and remember Him. 

## 다음 주일 설교

## 기념하라

<sup>(24)</sup> 축사하시고 때여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sup>(25)</sup>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sup>(26)</sup>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4~26)



김성관 목사

##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더 나아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잊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기억하면서도 현재는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만찬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격려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기념하려고 성찬식을 행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며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시기 때문에 주의 만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 심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라

예수님은 이 만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이 만찬의 상석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심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으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자기 심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은 좁은 길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만찬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영적의 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아 계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 벅차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심자가의 복음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담대하게 합니다.

## 항상 동행하심을 기념하라

심자가 없이 주의 만찬에 나오는 것은 매우 무의미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다만 우리는 '과거에 주님께서 만찬의 자리에 계셨을 때 어떠했을까, 또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할까'를 고려하면서 기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큰 오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반드시 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 자비와 사랑을 기념하라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상징적인 의미들로 가득합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회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그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참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제림을 기념하라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이 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심자가의 은총을 통해 열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림의 그 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이름을 존경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단지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그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심자가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심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이 만찬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심자가가 있음으로 인해 부활이 있고, 어떤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예수님은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8을 통해서 의지하고 있습니다. "심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심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심자가의 은총이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총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심자가를 통해 은총의 자녀 된 우리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다 함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시다. **▲**

##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 불 속의 신앙인들

## (단 3:24~28)

드라, 메사, 아벳느고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통해서 자신에게 절할 것을 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을 상정하는 금우상 앞에 절하며 경배하지 않을 때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단 3:15). 여기에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재물을 인정받아 평탄한 미래를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의 상황과 적당히 극복하면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신앙에는 '대충, 적당히'는 없었다. 이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있다면 어떤 태도와 선택을 하였는가? 혹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절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불 속의 신앙인들은 없었다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 지금 불 앞에 서 있다. 지금 당장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사하고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한 자리아는 왕이여 이 사람들아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단 3:12). 결국 이들은 극렬히 타는 불무릎 앞에 섰다.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우고 있는 불은 이들의 비극적인 종말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위기속에서 이들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였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온세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시라 드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줄을 아옵소시"(단 3:17, 18).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나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매일 매 순간 거짓과 외심으로 가득한 신앙은 아닌가?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의 권세 앞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불 속의 신앙인들을 보라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 세상과 타협은 없었다. 왕의 명령, 우상에는 관심이 없다. 자신의 생명은 매우 위태로웠지만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금우상이 자신의 행복을 보충해 줄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단지 저주의 상징으로만 보았다. 이들은 오직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랄 뿐이었다.

이들처럼 우리의 삶도 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다. 적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담보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리질 수 없는 함정이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자기를 만드신

세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참 구원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은총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모두 버려자. 자신의 영광만을 좇을 때 성경은 완전히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게 된다. 이러한 자들의 종말은 진실로 비참하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고전 6:9, 10). 그러므로 하늘에 시민권을 둔 은총의 자녀는 달라야 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없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전 6:11). 보혈로 정결케 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신자의 삶에는 세상의 것은 모두 배설물처럼 버려질 줄까지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골 3:7-9).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신앙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 왕에게 담대히 말하였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단 3:16). 바로 이 모순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다(골 3:10-12).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은총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를 불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슬리란 삶이 주어진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자에게 승리의 삶이 주어진다.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였다. 극렬히 타는 불무릎 속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것은 죽음으로 끝난 실패가 아닌 참 승리의 서막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느부갓네살이 불무릎 앞으로 가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와 나와서 이리로 오라"(단 3:23). 불무릎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몸을 보호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였었다(단 3:25, 27). 이 놀라운 광경 앞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사드락과 메사하고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찌라도 그가 그 자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망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단 3:28). 이뿐이 아니다. 왕은 조서를 통해서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의 안전을 보증하였다(단 3:29). 이처럼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의 원천은 믿음이였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로"(요일 5:4, 5). 예수님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였을 뿐이었다(마 26:39).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있는가? 불 속의 신앙인들을 보라. 이들은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달랐다. 또한 이 믿음이 이들에게 승리를 주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더욱 자기를 부인하며 불 속에서도 들어가자. 그럴 때 주님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실 것이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 임직자 명단

## 제39대 장로

| 이름  | 교구 | 교적번호   | 이름  | 교구 | 교적번호   | 이름  | 교구 | 교적번호   |
|-----|----|--------|-----|----|--------|-----|----|--------|
| 정창수 | 3  | 93-283 | 임복섭 | 6  | 89-29  | 이상식 | 4  | 82-153 |
| 오순도 | 4  | 86-325 | 양기수 | 5  | 89-688 | 김태식 | 15 | 89-18  |

(좌에서 우로 연순)

## 제19대 안수집사

| 이름  | 교구 | 교적번호    | 이름  | 교구 | 교적번호    | 이름  | 교구 | 교적번호    |
|-----|----|---------|-----|----|---------|-----|----|---------|
| 정철석 | 8  | 91-616  | 정운출 | 18 | 95-1489 | 이정실 | 9  | 3821    |
| 박찬옥 | 12 | 92-240  | 김승규 | 1  | 89-979  | 백종운 | 4  | 95-525  |
| 한용택 | 6  | 91-68   | 유동호 | 3  | 89-1556 | 정준  | 13 | 99-964  |
| 이성남 | 14 | 91-278  | 이선종 | 12 | 99-1019 | 이일준 | 7  | 91-1112 |
| 김종민 | 13 | 4100    | 서진원 | 15 | 96-638  | 임희준 | 5  | 86-376  |
| 김동안 | 17 | 4946    | 강홍신 | 8  | 92-303  | 이인옥 | 4  | 91-685  |
| 박남수 | 3  | 86-45   | 박규원 | 17 | 2145    | 정재복 | 9  | 84-988  |
| 박석산 | 6  | 91-52   | 정찬홍 | 2  | 96-949  | 이준식 | 3  | 2842    |
| 김기홍 | 10 | 83-707  | 박재원 | 18 | 92-1743 | 장지현 | 8  | 89-290  |
| 장정옥 | 6  | 94-1201 | 박병근 | 13 | 82-454  | 임갑선 | 18 | 82-129  |
| 유병수 | 2  | 95-680  | 백종환 | 14 | 94-108  | 최효원 | 4  | 89-228  |
| 정승진 | 16 | 83-703  | 황재원 | 3  | 88-257  | 임우도 | 16 | 88-1012 |
| 임병준 | 7  | 53      | 양승찬 | 11 | 87-463  | 이경환 | 7  | 98-1172 |
| 한홍원 | 17 | 87-603  | 최계열 | 1  | 91-1231 | 이상배 | 12 | 83-662  |
| 이진수 | 1  | 88-816  | 김충식 | 10 | 82-520  | 김종원 | 15 | 95-1597 |
| 최영인 | 9  | 89-232  | 정진권 | 5  | 90-217  | 김성원 | 15 | 97-888  |

(좌에서 우로 연순)

## 제47대 권사

| 이름  | 교구 | 교적번호    | 이름  | 교구 | 교적번호    | 이름  | 교구 | 교적번호    |
|-----|----|---------|-----|----|---------|-----|----|---------|
| 강석분 | 10 | 81-38   | 강장자 | 14 | 82-791  | 곽계자 | 5  | 91-1238 |
| 구영희 | 18 | 88-747  | 김희정 | 7  | 79-352  | 김금혜 | 12 | 94-1064 |
| 김남희 | 8  | 89-420  | 김미자 | 17 | 84-559  | 김보옥 | 3  | 86-45   |
| 김영규 | 3  | 2966    | 김영철 | 17 | 82-825  | 김영자 | 2  | 90-586  |
| 김옥희 | 16 | 2076    | 김유배 | 10 | 89-1563 | 김재운 | 14 | 84-484  |
| 김정란 | 9  | 79-353  | 김미주 | 16 | 89-1159 | 김태숙 | 15 | 96-166  |
| 김희순 | 1  | 89-1421 | 김희수 | 1  | 95-1543 | 나영실 | 12 | 83-289  |
| 남계순 | 18 | 97-144  | 남숙자 | 11 | 1342    | 유향란 | 16 | 84-1236 |
| 문경숙 | 11 | 81-171  | 박경숙 | 18 | 95-1857 | 박남진 | 15 | 93-1067 |
| 박복순 | 4  | 83-73   | 박복순 | 12 | 5071    | 박성남 | 13 | 92-208  |
| 박영순 | 8  | 91-1107 | 박영숙 | 6  | 88-866  | 박재순 | 7  | 93-651  |
| 박혜순 | 17 | 88-695  | 박혜순 | 16 | 87-570  | 박희자 | 13 | 99-964  |
| 성명선 | 3  | 81-145  | 성희진 | 15 | 86-611  | 손유자 | 13 | 81-283  |
| 송혜숙 | 17 | 88-610  | 송혜숙 | 14 | 96-1254 | 신영희 | 7  | 4696    |
| 안수자 | 6  | 92-1167 | 양영애 | 15 | 93-626  | 염정자 | 11 | 85-873  |
| 오혜옥 | 10 | 93-1793 | 유은실 | 9  | 357     | 유정진 | 16 | 82-688  |
| 윤남순 | 14 | 3335    | 윤순  | 2  | 88-560  | 윤홍자 | 7  | 80-10   |
| 이규숙 | 3  | 89-1556 | 이복면 | 8  | 1748    | 이숙희 | 1  | 86-125  |
| 이순애 | 6  | 4919    | 이순애 | 17 | 5345    | 이영미 | 11 | 442     |
| 이영순 | 12 | 88-80   | 이옥순 | 17 | 88-609  | 이윤리 | 1  | 93-1054 |
| 이재순 | 9  | 92-1569 | 이창순 | 4  | 91-500  | 이향선 | 4  | 95-253  |
| 이경희 | 3  | 89-1422 | 이정숙 | 11 | 79-117  | 정금순 | 13 | 86-306  |
| 전영희 | 5  | 94-523  | 조순남 | 2  | 4160    | 최수자 | 8  | 88-729  |
| 최영애 | 10 | 88-22   | 한숙  | 9  | 87-621  | 함유자 | 5  | 82-7    |
| 홍애자 | 5  | 92-433  | 황순란 | 6  | 82-435  | 황경미 | 7  | 92-1244 |
| 황향  | 4  | 93-1851 |     |    |         |     |    |         |

(좌에서 우로 이문순)

## 선교지에서 온 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승리교회

있을까? 라는 열의로 저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가서 사역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를 담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걸음을 움직이셨고 저는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드디어 사역 시작 후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저는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그러나 주님은 또 다시 저의 믿을 없음을 깨우치셨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더욱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일 예배에 9명이 되는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시 한 번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승리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로 많아졌습니다. 셋째 주일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책을 한 번도 보지도 읽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성경 읽기를 집

2006년 3월 14일, A국의 한 지역에 파송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이 지역에 파송받아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열의로 저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가서 사역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를 담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걸음을 움직이셨고 저는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중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매주 수요일 새벽 기도회 후에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꾸준히 십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주일에 세 차례 예배를 드립니다. 90여 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른 예배, 청년 예배, 어린이 주일 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른이 10명, 청년부는 30명, 어린이 예배는 50~60명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청년부 성경공부 모임 및 교제 시간을 통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어른들을 위한 성경 읽기 및 성경 공부를 하며, 토요일에는 어린이 성경공부를 하고, 주일예배 준비(찬양팀)와 주일학교 준비를 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청년부 수련회에는 100명이 참석하여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세워진 10명의 청년 리더들은 복음을 위해서 성실하게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모이기에 힘써 복음 전도에 힘쓰는 승리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자제들이 한 것은 정말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했음을 진실로 믿습니다. 승리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쫓겨온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A국 피운선교사

\*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왔다는 사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너무나 순순하게 받아들였다. 농아인들 눈에 쉽게 될 수 있도록 수화를 하면서 거리를 누볐다. 간혹 현지 경찰들도 만났다. 그러나 주님은 경찰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한 번도 우리를 막는 일이 없었다. (번역대 안수씨)

\* 전도 집회 때 그 동안 준비한 성극과 찬송을 통해 복음의 은혜에 감동해 그 자리를 뜨지 않았던 농아인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듯하다. 팀원들과도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가 되었다. (김정진)

\* 농아인 초청 집회에서 "천국 혼인잔치"란 성극을 하였다. 그 때 할머니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곳 수화로 "제발 돌아가지 마, 여기서 살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 안 돼?"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메어졌다. 그 곳에 복음의 일꾼을 보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혜영)

\*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농아인들, 너무 점이 많고 정말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 국적으로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다. 그러나 농아인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반갑게 대해 준다. 복음의 말씀도 잘 전달된다. 그 곳에 하루 빨리 농아인 교회와 세워지고 그들이 주일 성수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길 기도한다. (오동혁)

\* '건청인들이 열심히 준비하여도 현지에서 잘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데 수화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선교지에 도착한 그 시간부터 모든 상황은 놀라웠다. 시장에서 축회전도 중 바쁜 가운데도 잘사하던 것을 중단하고 또 다른 농아인에게 연결, 또 연결, 생업보다는 복음을 듣게 해 주는 것이 더 급하고 중한 일로 생각하고 끝까지 안내를 해 주는 그들의 모습은 나의 신앙 생활을 다시 한 번 회개하며 돌아보게 하였다. (남은희)

\* 공민이나 시장에서 농아인들을 만났다. 어떤 농아 할머니는 작년에 우리가 나누어 준 전도지와 책받침을 아직도 귀한 마음으로 간직하며 자주 읽는다고 하였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감동이 넘쳤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하니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워졌다. (정영미)

수화로 전한  
십자가의 복음

## 에바다부 2팀

\* 제가 만난 농아인 중에 50~60대의 많은 농아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갔고 있었다. 교회에 다니는 농아인들 몇몇은 그들의 아들과 딸이 수화 통역을 해 주어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였다. 이번 선교를 통해 언제든지 때가 오면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선교를 통해서 더욱 십자가를 깨닫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 (송용규)

\* 전리가 아닌 것에 깊이 빠져든 현지인들의 영혼이 참으로 가깝게 느껴졌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렸다. 사명대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할 뿐이다. (신성철)

\*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피하지 않고 뒷걸음질을 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씩씩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깥세상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다. 기쁨 뿐만 아니라 슬픔 때에도 감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노지은)

\* 더운 날씨인데 우리 팀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아름다웠다. 몸은 피곤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항상 웃는 모습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가도록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박영진)

\* 마지막 날 모임에서 단기선교 마치는 날이 아니라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계의 농아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세계 선교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감사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 보니 받은 은혜가 오히려 더 컸다. (이계숙)

\* 세 번째 선교인 만큼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게 될까 싶어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였다. 회사일로 인해서 선교훈련에 차질이 생기곤 하였지만 주님은 이를 미리 아시고 기도와 찬양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채워 주셨다. 매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의지하게 하였고 부족한 선교지 수화와 말로 인하여 선교지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였다. (민영주)

## 어린 양을 향한 찬송의 울림

"너희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할렘루야"(시 117:1,2). 말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칭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본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토록 창조되었으니(사 43:21)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의 관계가 깨어지고 찬송이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핸드벨 연주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매주일 5부 예배에 헌금송을 담당하고, 한 달에 한번 주일 저녁 찬양예배에 찬양을 드리고 일 년에 두번 금요 찬양예배에 찬양을 맡고 있습니다. 또 때때로 교회학교나 각 부서에서 특별연주를 청할 때 기꺼이 응하고 있습니다. 핸드벨 연주대는 대원들 간에 나이 차이가 많아 연습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 서로 몸집감을 갖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연주법을 지도해 주며 나아와 있습니다. 어린 대원들이 핸드벨 연주대를 통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핸드벨 연주대는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본당 3층(원쪽) 제3다락방에서 기도회와 연습 시간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라"(롬 12:5)함과 같이 핸드벨은 최소 연주 단위가 5육터브 1세트로 6개의 종(bell)으로 구성되는 악기의 특성상 혼자서는 곡을 만들 수가 없고 여러 대원이 연합해야 한 곡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벨 연주를 통하여 협동과 인내를 훈련받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회하 여주할지어다"(시 33:3).

짧은 연습 시간이지만 집중하여 연습함으로 좀 더 숙달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이 전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전달되지 않는 연주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에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계 7:10),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라는 찬양의 내용이 전해지기를 온 대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핸드벨 연주대 대원 모두가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옮겨져 참으로 보혈의 은총을 찬양하는 대원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며 온 성도들과 저희 핸드벨 연주대 대원들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롬 1:25)의 고백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승욱(연사, 핸드벨 연주대)

## 마음 속의 금송아지를 깨뜨리며

'복음의 빛진 자가 되었기에 남은 인생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리라!'라고 다짐하며 지내온 지난 10년의 세월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였던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국수를 삶으며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의 지혜도 능력도 아닌, 죄인이어서 무지한 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막간한 채 마음속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부수기를 반복했던 언약한 저를 금송이 여기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저는...'

매일 매순간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성전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풀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항상 내 안에서 솟구치는 고만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까지 오직 마음의 진실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어진 일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면 꼭 옆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보다 더 힘드니!"라며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며 오늘도 저는 살아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김필자(집사, 1교구)

##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전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전도를 안 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할 때 어려운 일만 겪을 것 같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참 기쁨이 좋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도 전도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멀고 말할 때 창피해서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하니 예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창피해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 기운이 납니다. 오래 오래 많이 많이 전도를 할 것입니다.

고영은(유년부)

##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난 아기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며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였다. 하지만 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닐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니 우리 반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다. 난 이상해서 부모님께 여쭙어 보았다. 부모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속에서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듣고 난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했다.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나의 믿음이 아주 적지만 내가 커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최지연(초동부)

## 교회 랑방 유아부 교사

##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엄마의 무릎에서 벗어나 처음 혼자 예배를 드리는 네다섯 살의 유아부 친구들. 유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들을 보며 무언가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 교사로 봉사를 시작한 계기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선주 집사)  
첫 아이를 낳아 유아부에 출석하던 중 전도사들의 권유를 받았어요. 그 음성이 주님께서 제게 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아멘” 하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아이들 때문에 기도했고 아이들 때문에 성경공부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부족한 것을 사용하며 주셨습니다. (강소영 집사)  
아이들이 군대를 가면서 제게 권유를 해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계속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 아이들을 통해 더 많이 받고 배우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권진숙 집사)

## 교사로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혼자서 예배드려야 하는 아이들에게 유아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강소영 집사)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등,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방문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한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며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자 집사)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니다. (권진숙 집사)

교회 안에서 커 온 아이들이 본인의 생각이 많아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이 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윤선주 집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강두연 집사)

저는 새친구들이 오면 등록을 시키고 안내를 하며 유아부 친구들과 함께 주보를 나누어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주보만 나눠 주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일 주일 동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감동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처음 나온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황규리 집사)

## 은혜받고 감사한 것은?

지방으로 이सान 아이를 위해 매주 주보를 보냈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는데 주님께서는 몇 년이 지난 후 그 아이를 교회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선자 집사)

유난히 떠돌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려고 할 때는 도저히 통제가 안 되던 아이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문제를 맡겨 드릴 때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길 원합니다. (강두연 집사)

세한기에 저의 반에 편성된 아이 가운데 집이 멀어 참석을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모르지만 가정 성경을 통하여 가정의 화평과 기도제목들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아이의 할머니, 어머니, 제가 기도의 동역자가 같이 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가까운 곳에 이사하게 되어 아이가 유아부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선주 집사)

## 성도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유아부에서는 가정 성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같이 기도하며 동역해서 유아부 친구들이 주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한 동역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선자 집사)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유아부 예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아부 선생님들을 믿고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엄마와 떨어진 아이들이 울고, 떠돌고, 투정을 부리지만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믿고 주시면 기도의 무릎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강소영 집사)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생님들. 그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단순히 어떤 직책을 가르칠 책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총이 가득한 유아부를 보며 크게 기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권진숙)

## 새롭게 하소서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나의 죄를 대속하시어 참 구주가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목적대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어

약속하신 신실함을 만민에게 나타내실 때 저를 사용하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사랑하시어 죄인들 가운데 구별하여 택하여 주셨으며

영혼이 어두워 깊은 잠을 잘 때 깨우시고,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조명하실 때 죄인임을 밝히 알게 하시는 성령님!

십자가의 공로로 참 회개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령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진흙과 같은 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칭하시어

죄분을 말기시며, 교훈하시고 감당하랴 명령하십니다.

이 때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통회 자복하여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택을

풍성히 내리어 주소서.



## 교회소식

## 모임

1. 전체권사회  
일시: 29일(오늘), 오후3시  
장소: 갈릴리움

## 1. 열

3. 김원경 집사(장성주 성도, 9  
구 면목구역) / 18월 별  
20일 장례
4. 강민경 성도(강성주 성도  
부, 4구로 원양구역)  
일 별세, 23일 장례
5. 안병영 집사(안갑삼 집사의  
친, 김준배 집사의 시부,  
교구 선덕구역) / 21월  
새, 23일 장례
6. 김옥집 성도(김경순 권사  
모친, 이상태 장례의 권사  
교구 청담1구역) / 22월  
새, 24일 장례
7. 김중은 은희사(김은주  
사의 남편, 김중현 집사  
부친 성도의 부친, 김중  
집사 - 오혜숙 성도의 사  
17구로 장성구역, 6구로)  
22월 별세, 25일 장례
8. 이옥희 집사(이원우 집사의  
친, 전진희 집사의 시모,  
교구 방학구역) / 23월  
25일 장례

7. 김용섭 은퇴권사(이승민 성도·이승건 성도의 모친, 김정숙 집사·최숙경 집사의 시모, 김운섭 안수집사의 누님, 3교구 개나리1구역, 18교구) / 25일 백세, 27일 장례

3. 김종식 군(김현배 안수집사, 박재임 권사의 아들, 10교구)과 권향임 양(김아래 타고권사의 딸, 15교구) / 11월 4일 (토) 16:00 빅토리아호텔 6층 다이아몬드홀 02)986-2000

## 결론

1. 전주유 군(전병태 성도, 김진수 성도의 아들, 등촌교회)과 미지현 양(이 훈 장로, 이경애 권사의 딸, 14교구) / 11월 3일(금) 13:00 칼리브홀
2. 김승준 군(김일순 은퇴 안수집사, 엄정자 권사의 아들, 11교구)와 민예현 양(민영수 씨, 김경숙 씨의 딸, 19교구) / 11월 4일(토) 14:30 세안대떡홀 02(73-73)88

## ◆ 소망부 총동원 전도집회

일 시 : 10월 29일(오늘)  
12:15~13:15  
장 소 : 갈릴리홀  
대 상 : 70세 이상  
모든 성도

### 1,2,3교육위원회 수료식 및 등반 안내

1,2,3교육위원회 전체 교회학교에서는 10월 29일(오  
 늘)에 수료식을 하고 11월 5일(다음 주일)에는 등반도  
 는 복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해당 복서에서는 차주

## 충현기도원 촉탁 직원 모집

1. 모집부문 충청기도원 주방 (여)  
2. 자 격 세례 교인 (만 60세 이하)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주민등록 등본당회장 추천서(타교인)  
4. 서류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6-1 사무국 ☎ 031-766-5425

## 교회 직원 모집

1. 모집 부문 음향 엔지니어(남·여) 전공자 우대
2. 자 격 세례 교인 (81년 이후 출생자)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주민등록 등본
4. 서류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2031-1111)

## 11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 월  | 일  | 주일예배 (장로) |     |     |     |     | 찬양예배<br>(한수집사) | 수요예배 (권사) |     |
|----|----|-----------|-----|-----|-----|-----|----------------|-----------|-----|
|    |    | I         | II  | III | IV  | V   |                | I         | II  |
| 11 | 5  | 이계인       | 김승곤 | 차득선 | 임창식 | 김단용 | 남홍송            | 김연단       | 김환기 |
|    | 12 | 서영식       | 박용근 | 원승원 | 전계식 | 김은철 | 김용필            | 한근래       | 남상인 |
|    | 19 | 진학래       | 최은덕 | 조호환 | 김진국 | 정정철 | 김계호            | 변금순       | 최영희 |
|    | 26 | 박덕만       | 권병욱 | 정신현 | 신선길 | 김중선 | 장정국            | 최양숙       |     |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         |           |           |          |          |          |          |           |
|---------|-----------|-----------|----------|----------|----------|----------|-----------|
|         | 10/30 (월) | 10/31 (화) | 11/1 (수) | 11/2 (목) | 11/3 (금) | 11/4 (토) | 11/5 (주일) |
|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이달옥   | 이희식/이정훈   | 하종철/장길남  | 안치원/강만호  | 정충신/조중민  | 양재웅/이옥주  | 하종철/김말자   |

## 예배담당 안내 (11/1-11/5)

| 날짜   | 에배     | 설교                               | 사회  | 기도  | 찬양                                                                                                                                                                               |
|------|--------|----------------------------------|-----|-----|----------------------------------------------------------------------------------------------------------------------------------------------------------------------------------|
| 11/1 | 주요 I   | 세상의 빛, 예수 (요 8:12-19) 장 홍목사      | 안치원 | 김진석 | 거린 세상에서 실패하는 (호산나 찬양대)                                                                                                                                                           |
| 11/1 | 주요 II  | 그 이름은 어디 있느냐 (눅 17:11-19) 유재진 목사 | 김현규 | 김옥자 | 여기 계신 주님 (실로암 찬양대)                                                                                                                                                               |
| 11/3 | 공요집회   | 김성관 목사                           | 최종철 |     | 소르로노 정경희 / 12교구                                                                                                                                                                  |
| 11/5 | 주일 I   | 기뎐하라 (고전 11:24-26) 김준희 목사        | 황진섭 | 이계인 | <b>《에배 전집》</b><br>큰 죄에 빠진 나사렛 / 불로노스 열 (만남교회 호세철)<br>이 세상 험하고 / 할렘바 제1 (만남교회 호세철) : 세운<br>만행의 날 내 주께서 / 비아냥은 이예드나 (만남교회 호세철 & 박광)<br>내 주님 주시게 온주은 / 비엔 올레 트라<br>험드스 만드나 / 이만 찬양대 |
| 11/5 | 주일 II  | 기뎐하라 (고전 11:24-26) 정진호 목사        | 남광영 | 김승곤 |                                                                                                                                                                                  |
| 11/5 | 주일 III | 기뎐하라 (고전 11:24-26) 김성관 목사        | 장영민 | 차신록 |                                                                                                                                                                                  |
| 11/5 | 주일 IV  | 기뎐하라 (고전 11:24-26) 고광환 목사        | 안정인 | 임창식 |                                                                                                                                                                                  |
| 11/5 | 주일 V   | 기뎐하라 (고전 11:24-26) 이창수 목사        | 이영호 | 김단하 |                                                                                                                                                                                  |
| 11/5 | 주일전야   |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고백하 (막 15:20) 김성관 목사 | 이성진 | 남용순 |                                                                                                                                                                                  |

### 예배 및 집회 안내

| 구분      | 시간                                        | 장소  |
|---------|-------------------------------------------|-----|
| I       | 오전 7:00                                   | 본 단 |
| II      | 오전 9:00                                   | 본 단 |
| 주 일 여 배 | III<br>(수) 오전 11:00<br>오후 1:00(한국 동성애 예배) | 본 단 |
| IV      | 오후 3:00<br>(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 본 단 |
| V       | 오후 8:00                                   | 본 단 |
| 전일양재    | 오후 5:00                                   | 본 단 |
| 초요매배    | I 오전 11:00 II 저녁 7:00                     | 본 단 |
| 교요진회    | 저녁 7:00                                   | 본 단 |
| 세번기도회   | 새벽 5:00                                   | 본 단 |

| 집회   | 시간       | 차량             |
|------|----------|----------------|
| 월요일배 | 오전 11:00 |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
| 교회요배 | 저녁 10:30 | 교회입회 부동 앞출발    |

오전 11:45에 드리는 주일부 예배 참석자, 중국어, 일어 및 수화로, 오후 1:45에 드리는 주일부 예배 참석자, 중국어, 영어, 일어, 한문, 인도네시아어, 로망시안어 등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vert O' Con Worship Service, and Sign Language,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Church Worship Service.

One Church Worship Service

## 기도원 집회 안내

| 집 회  | 시 간      | 차 량             |
|------|----------|-----------------|
| 최초집회 | 오전 11:00 | 오전 10:00 분당 알출발 |
| 금요철야 | 저녁 10:30 | 금요집회 후 분당 알출발   |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어 및 루마니아어, 오전 1시에 드리는 주일 7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로망시어 등입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t. Lankar,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섬 · 기 · 는 · 분 · 들

## ■ 위임목사 김성관

- | 시무장소 |                       |                       |                      | ■ 부속사                 |                      |                      |                      |              |  |  |  |  |
|------|-----------------------|-----------------------|----------------------|-----------------------|----------------------|----------------------|----------------------|--------------|--|--|--|--|
| 김의철  | 김성호<br>한양사<br>12.29   | 노광현<br>당신사<br>12.29   | 이병학<br>예배당<br>12.29  | 이 훈<br>예배당<br>12.29   | 정현민<br>봉사자회<br>12.29 | 박기근<br>예배당<br>12.29  | 류병희<br>12.29         | 여국근<br>42.29 |  |  |  |  |
| 남신우  | 김진우<br>충현2사<br>11.29  | 허두길<br>김사회<br>11.29   | 이창호<br>전통회<br>11.29  | 차득선<br>전통회<br>11.29   | 나광영<br>전통회<br>11.29  | 정진호<br>전통회<br>11.29  | 고광환<br>전통회<br>11.29  | 위단장          |  |  |  |  |
| 김장남  | 이종식<br>장신교회<br>11.29  | 임무진<br>전통회<br>11.29   | 전홍용<br>전통회<br>11.29  | 전종원<br>고구려교회<br>11.29 | 장 훈<br>전통회<br>11.29  | 이현덕<br>전통회<br>11.29  | 이희식<br>전통회<br>11.29  | 최종철          |  |  |  |  |
| 이정우  | 김건용<br>당신사<br>11.29   | 한승균<br>전통회<br>11.29   | 김장수<br>전통회<br>11.29  | 김원기<br>전통회<br>11.29   | 하충철<br>안성교회<br>11.29 | 정종신<br>안성교회<br>11.29 | 양재용<br>안성교회<br>11.29 | 이성진          |  |  |  |  |
| 원용철  | 이형수<br>가동교회<br>11.29  | 안동원<br>예배당<br>11.29   | 황미란<br>예배당<br>11.29  | 김구형<br>고동교회<br>11.29  | 이정우<br>전통회<br>11.29  | 이광춘<br>고동교회<br>11.29 | 이창수<br>고동교회<br>11.29 | 김준희          |  |  |  |  |
| 최용덕  | 이계인<br>실로암교회<br>10.29 | 박덕영<br>전통회<br>10.29   | 이대식<br>전통회<br>10.29  | 정태두<br>전통회<br>10.29   | 손우일<br>화진교회<br>11.29 | 유재진<br>전통회<br>11.29  | 강명규<br>전통회<br>11.29  | 정선원          |  |  |  |  |
| 박승규  | 권명호<br>삼사위원회<br>11.29 | 조종환<br>북사위원회<br>11.29 | 배준식<br>전통회<br>11.29  | 김달영<br>전통회<br>11.29   | 김철규<br>한진교회<br>11.29 | 이용진<br>한진교회<br>11.29 | 양태연<br>한진교회<br>11.29 | 유성태          |  |  |  |  |
| 이신호  | 서지우<br>당신교회<br>11.29  | 노영환<br>북사위원회<br>11.29 | 비철구<br>전통회<br>11.29  | 정정길<br>전통회<br>11.29   |                      |                      |                      |              |  |  |  |  |
| 신장수  | 고계승<br>당신교회<br>11.29  | 강철형<br>당신교회<br>11.29  | 김영은<br>가동교회<br>11.29 | 이덕윤<br>당신교회<br>11.29  | 윤인숙<br>한영교회<br>11.29 | 김민서<br>한영교회<br>11.29 | 홍순재<br>한영교회<br>11.29 | 이옥주          |  |  |  |  |
| 정철환  | 김기남<br>충현교회<br>11.29  | 함철주<br>당신교회<br>11.29  | 유승진<br>당신교회<br>11.29 | 정신원<br>제일교회<br>11.29  | 김갑자<br>안동교회<br>11.29 | 안동순<br>김정교회<br>11.29 | 정근태<br>김정교회<br>11.29 | 최보신          |  |  |  |  |
| 안석현  | 김경관<br>3.29           | 김정구<br>3.29           | 김정국<br>3.29          | 이창식<br>3.29           | 전성희<br>11.29         | 김경자<br>11.29         | 이복순A<br>13.29        | 이복신B<br>대학원  |  |  |  |  |
| 김성철  | 전학태<br>장신교회<br>11.29  | 김신국<br>전통회<br>11.29   | 전계식<br>전통회<br>11.29  | 장승길<br>전통회<br>11.29   | 임태주<br>3.29          | 유미자<br>3.29          | 유치자<br>3.29          | 이복순B         |  |  |  |  |
| 전은배  | 서영진<br>장신교회<br>11.29  | 구재관<br>전통회<br>11.29   | 송두명<br>전통회<br>11.29  | 최차용<br>전통회<br>11.29   | 강호수<br>전통회<br>11.29  | 전영희<br>전통회<br>11.29  | 이복순<br>전통회<br>11.29  |              |  |  |  |  |
| 신진권  | 유상태<br>당신교회<br>11.29  | 박상진<br>당신교회<br>11.29  | 김규식<br>당신교회<br>11.29 | 신광철<br>당신교회<br>11.29  |                      |                      |                      |              |  |  |  |  |
| 정창수  | 임복선<br>가동교회<br>11.29  | 이상식<br>당신교회<br>11.29  | 오순도<br>당신교회<br>11.29 | 양기수<br>당신교회<br>11.29  |                      |                      |                      |              |  |  |  |  |
| 김대식  | 김대식<br>당신교회<br>11.29  |                       |                      |                       |                      |                      |                      |              |  |  |  |  |
|      |                       |                       |                      | ■ 전연도사                |                      |                      |                      |              |  |  |  |  |
|      |                       |                       |                      | 윤인숙                   | 한영교회                 | 김민서                  | 한영교회                 | 이옥주          |  |  |  |  |
|      |                       |                       |                      | 김갑자                   | 안동교회                 | 안동순                  | 김정교회                 | 정근태          |  |  |  |  |
|      |                       |                       |                      | 전성희                   | 김정교회                 | 이복순A                 | 이복신B                 | 대학원          |  |  |  |  |
|      |                       |                       |                      | 임태주                   | 유미자                  | 유치자                  | 이복순B                 |              |  |  |  |  |
|      |                       |                       |                      | 강호수                   | 전영희                  | 이복순                  |                      |              |  |  |  |  |
|      |                       |                       |                      | ■ 전임감로 강구근            |                      |                      |                      |              |  |  |  |  |
|      |                       |                       |                      | 전임지치서                 | 서문선                  | 김원식                  |                      |              |  |  |  |  |
|      |                       |                       |                      | 전임조참지                 | 김조연                  |                      |                      |              |  |  |  |  |
|      |                       |                       |                      | 전 교사                  | 유환영                  |                      |                      |              |  |  |  |  |